

신 KS M 3514 PE배관 식별 표시 검사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 12. 01부터 PE배관 KS 규격(KS M 3514)이 ISO 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KS규격 PE배관을 서로 연결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식별할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2007. 11. 01 이후 제조된 배관은 신 KS M 3514 PE배관 검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및 판정 받아야 한다.

개요

□ 신 규격과 구 규격 PE배관 직접 연결 시 문제점

- 신 규격과 구 규격 PE배관은 내·외경 및 두께가 달라 직접적인 연결 사용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의 조합형 이음관에 의한 신·구 배관 연결 필요함
- 조합형 이음관 없이 양 배관을無理하게 연결시 용착부 응력집중 등 위험성 존재

□ 신 규격 PE배관 식별 안 될 경우 문제점

- 기존관에서 연결(분기)작업, 기존관 교체 등 보수작업시 규격이 서로 다른 배관의 오접합 우려
→ 신 KS 규격 PE배관의 통일된 식별방안 필요

진행사항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1083호(2007. 04. 07)
: 도시가스 매물배관 표시방법 협조 요청
- PE배관 제조사 및 도시가스사 합동 간담회 실시
- 일시 : 2007. 04. 24
- 장소 : 인천도시가스(주)
- 내용 : 신 KS M 3514 규격 식별 방안
-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제191호(2007. 05. 10)
- PE배관 신·구 규격 식별방안 의견 송부("4열 보조선 표시"동의)
- PE배관 제조사 식별표시 가능 여부 조회(2007. 05. 15)
- 한국 PEM 등 3개 제조사 회신
- PE배관 제조사의 식별표시 방안 검토의견 회신
- 대한설비건설협회 : 2007. 0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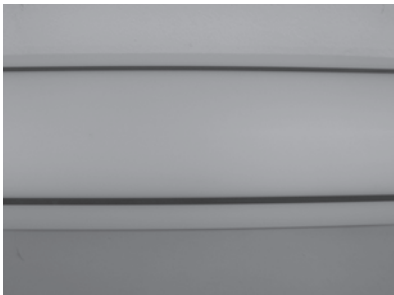
-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PE배관으로 조치
 - 한국도시가스협회 : 2007. 07. 24
-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PE배관 사용 또는 4열

보조선 없는 신규격배관 : 길이방향으로 1열의 검정색 PE테이프 연속적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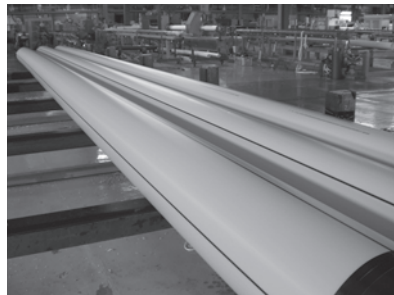
• PE배관 제조사 식별표시 생산시기 조회(2007. 10.16)

4열 보조선(검정색)표시 가능시기 회신내용

제조사	식별표시 가능시기		제조사	식별표시 가능시기	
	관경(mm)	생산개시		관경(mm)	생산개시
(주)한국PEM	63~400	2007. 10. 04	코스모산업(주)	63~315	2007. 10. 20이후
(주)동원프라스틱	63~400	2007. 08. 20	브렌트유화산업(주)	63~315	2007. 08. 20
(주)사이몬	40~400	2007. 07. 25		40, 50, 355, 400	2007. 10. 25이후



(주)사이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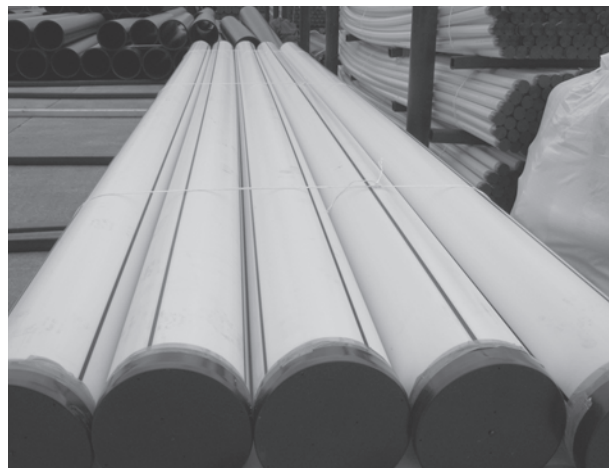
(주)한국PEM



(주)동원프라스틱



코스모산업(주)



브렌트 유화산업(주)

▲ <신 KS 규격 배관 식별표시 현황>

PE배관 검사기준

□ PE배관은 검정색 “4열 보조선”을 표시한 것을 사용토록 함

- 대상 : 모든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중 지하매설 PE관(LP가스 시설 포함)
- 해당제품 : 2007. 11. 01 이후 제조된 신 KS M 3514 규격 PE관
- *신 KS M 3514 규격 PE관 이라 해도 2007. 11. 01 전에 제조된 제품은 특별한 제한 없음


→ 2007. 11. 01 이후로는 PE배관 5개 제조사가 검정색의 “4열 보조선” 표시품을 생산하므로 적용 문제없음

행정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본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안내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는 관내 도시가스사 및 시공업체에 제4호의 “PE배관 검사기준” 안내 및 지역본부(지사) 홈페이지 동시 안내

〈신·구 KS규격 PE배관 구별 방법〉

구분	인쇄사양	표시내용
구 KS	종별, 호칭, 제조연월, 제조자	폴리에틸렌가스관, 1-250, 20020911, ○○○(주)
신 KS	제조업체명, 상품명, 내부유체, 치수, SDR, 원재료종류, 생산기간, 규격번호	○○○(주), 폴리에틸렌가스관, 가스250, SDR=11, PE80, 20011230, KSM3514:200



토막상식

더불어 산다 - NQ

현대는 IQ나 EQ가 아닌 NQ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성 지수를 EQ라고 한다. 또 CQ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카리스마 지수를 의미한다. 카리스마가 많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 밖에 외모를 잘 꾸미는 VQ(비주얼 지수)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NQ는 무엇일까. NQ는 공존지수(network quotient)라고 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지수다. NQ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쉽고,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 삼아 더 성공하기 쉽다고 한다.

NQ(공존 지수)는 패거리 개념과는 다르다. 내가 속한 집단

은 잘되고 달는 집단은 소외시킨다는 패거리 문화가 아니라, 서로 잘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타적 개념에 가깝다. 특히 NQ는 요즘 아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자주 만나게 하고, 좋은 어른들도 자주 만나게 해야 한다. 또 책과 신문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키워 주어야 한다.

공존지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인 NQ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의 덕목이 아닐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당할까. 고슴도치 선생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